동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확대…“지역경제 선순환 강화”

68곳 업체 141개 품목서
신규 13곳 등 46개 추가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문화체험·지역화폐 ‘이색’

광주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로 기부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끄는 일석이조 효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1차 공모를 통해 신규 13곳과 기존 6곳 등 총 19곳에서 46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전까지는 68개 업체를 통해 총 141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왔다.

이번 확대는 단순한 품목 증가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중심을 뒀는데, 이를 통해 동구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부터 답례품을 기부에 따른 보상을 넘어 지역경제를 직접 살리는 정책 수단으로 설계해 왔다.

기부자가 선택한 답례품은 곧 지역 상인의 매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내 생산과 소비, 고용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 상권 유지와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강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답례품에는 축산 수산물과 농산물 등 지역 먹거리를 비롯해 책꾸러미, 문화 체험, 지역화폐(동구랑페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함께 담아내는 방향으로 확장됐다.

동구는 답례품 확대로 2023년 9억원, 2024년 24억원, 2025년 64억원이었던 모금 실적의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답례품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연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정 기부 사업과 연계한 콘텐츠형 답례품을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변화를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답례품 체계를 통해 기부가 곧 골목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제2회 서구 스포츠스태킹협회장배 대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25일 상무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회 서구 스포츠스태킹협회장배 대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서구 제공〉

서구, 고유가 지원금 신청 서류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오늘부터 7월17일까지

광주 서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1천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26일 서구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리 신청과 이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27일부터 이의 신청 종료일인 오는 7월17일까지 무료로 발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1차 신청은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이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비수도권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원, 그 밖의 소득 하위 70% 주민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등 이의신청 때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서구청 종합민원실과 365민원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1천원이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반복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금 신청부터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는 행정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올바른 반려문화 함께 만들어요”

광산구, 공원 등 40곳에 대기소 설치

광주 광산구는 26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장소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소통 정책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공공장소에서 반려 예절 미준수 민원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구는 공원과 산책로 등 주민 이용이 잦은 공공장소 40곳에 펫티켓 안내 기능을 겸비한 ‘반려견 대기소’를 설치한다.

해당 시설은 보호자가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반려견을 안전하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발 사고를 예방하고 비반려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9월 신촌생활·선운·운남근린공원 3개소에 대기소를 시범 설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일상 속 갈등 사례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반려문화 소통협의체’를 신설한다. 참여자 모집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광주 광산구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과 산책로 등 공공장소 40곳에 반려견 대기소를 설치·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선운공원에 설치된 반려견 대기소 모습. 〈광주광산구 제공〉

아울러 신중년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선발된 ‘반려동물 문화지킴이’를 민원 다발 구역에 집중 배치해 펫티켓 캠페인과 현장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발맞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촘촘한 반려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남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 특화사업 추진

광주 남구는 26일 “지역 산업 특성과 고용 수요를 반영한 3가지의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사업은 최근 광주시 주관 ‘2026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이 가능해졌다.

남구는 다음 달부터 사업비 2억3천5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특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분야는 ▲홈케어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AI 기반 중소기업 마케팅 경쟁력 강화 기업 지원 ▲남구 복지기업 안전 마음건강 통합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용 창출을 넘어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북구,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달까지 모집…10가구 선정

광주 북구가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불편요소를 개선해 이동 안전과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 이하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 중인 가구로, 총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이뤄진다.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은 높이 조절 세면대, 현관 경사로, 안전 손잡이 등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접수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중 최종 선정된다.

동점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장애인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